

# 국민소득 (國民所得)



정 찬 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  
GNP란 한나라의  
국민이 한해  
동안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한다.  
”

## 1. 국민소득이란

한 가정의 생활수준을 그 가정의 월수입을 통하여 알아보듯이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국민소득이란 경제지표가 이용된다.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한해 동안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가계, 정부, 기업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이 생산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지엔피: GNP (Gross National Product)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새로운 가치란 물건의 값에서 원료비나 재료비를 뺀 나머지 만을 의미하는데, 이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이라 하고 원료나 재료를 중간생산물(中間生産物)이라 하며, 그 구입비를 중간투입액이라 한다. 즉 제빵업자가 17천원 어치의 빵을 생산했을 때 그 전부가 국민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14천원 어치의 밀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를 뺀 나머지 3천원만이 제빵업자가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즉 부가가치(附加價値)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란 생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간투입액을 뺀 부가가치의 합계를 말하기도 한다.

국민소득은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1)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측면(생산국민소득), (2) 발생된 소득이 분배되는 분배측면(분배국민소득), (3) 분배된 소득이 지출되는 지출측면(지출국민소득)이하 <표>

생산국민소득은 기업이 토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며 생산된 국민소득이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에게는 임금,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임료를, 그리고 부가가치에서 이들을 공제한 잔여가 이윤으로 기업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그리고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기업이 기계를 구입 또는 건물증축에 투자하는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생산된 것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생산, 분배, 지출의 양이 같아지며 이를 「국민소득의 3면 등가원칙」이라 한다.

<표> 국민소득계정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피고용자보수	민간소비지출
비법인기업소득	일반정부소비지출
농업소득	국내총고정자본형성
재산소득	재고증가
임료	(공제)재화와용역의수입
이자	통계상불일치
배당	국내총생산에 대한지출
법인 이전지불	해외순수취소득
법인지축	국민총생산에 대한지출
법인에 대한직접세	(공제)간접세
일반정부재산과기업소득	(가산)보조금
(공제)공채이자	(공제)고정자본소모충당금
(공제)소비자부채이자	
국민소득	국민소득

2. 국민소득의 여러 개념과 구성(그림)

국민소득은 사용목적에 따라 몇가지 기준에 의해 다

시 분류된다.

1) 국민총생산[GNP(지엔피): Gross National Product] 과 국내총생산[GDP(지디피): Gross Domestic

**국민소득의 3면 등가원칙이란  
생산된 것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생산, 분배, 지출의 양이  
같아짐을 말한다.**

Product]

국민총생산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생산에 참여하여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총계이다. 국민총생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자본소모충당금은 포함된다.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과 같이 고정자본소모충당금까지 포함한 생산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나 국내생산활동 결과의 소득만을 합제한 것이다. 예컨대 중동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소득은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나 국내총생산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2)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와 국내순생산(NDP: National Domestic Product)

국민순생산은 국민총생산중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고정자산의 가치분을 뺀 것이며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분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소모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분석을 할 경우에는 총생산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3)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국민소득은 국민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충당금 및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뺀 것으로 한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한 소득을 알아보는데 사용된다.

4) 개인소득(PI: 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은 국민소득 가운데 개인에게 지불되지 않는 소득(법인소득, 일반정부의 재산소득, 기업소득)을 공제하고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급, 해외로부터 송금 등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합한 것이다. 개인소득은 국민의 구매력을 잘 나타내 준다.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보다 살기 좋은 곳이다.

5) 개인가처분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은 개인 임으로 소비나 저축으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다. 개인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직접세와 기타 경상이전지불(해외교포에 대한 송금)을 뺀 것이다. 개인가처분소득은 국민들이 소비와 저축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기본이 되는 지표이며 개인이 실제로 받고 또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크기를 나타내 준다.

지금까지 설명한 소득은 전체의 생산활동결과를 합산하여 숫자로 나타낸 것이므로 전문용어로 총량지표(總量指標)라고 한다. 이러한 총량적 지표는 각자가 받은 소득이 낮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커지게 된다.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지엔피(GN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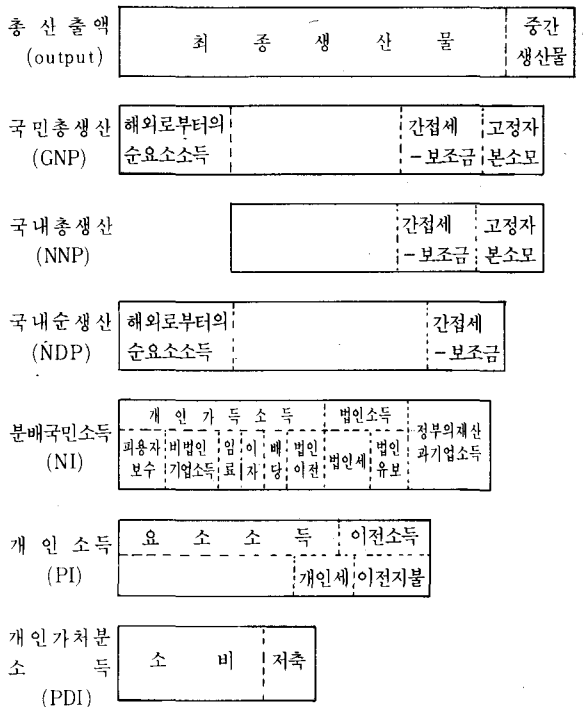
6) 1인당 국민소득(GNP)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가격 국민소득을 연중 평균인구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보통 그 나라의 화폐가치로 표시하거나 국가간에 비교를 위해 환율로 나누어 달러화로 표시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보다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들은 흔히 연간수입을 가족수로 나눈 값을 1인당 GNP와 비교하여 자기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데 이와 같은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5인 가족의

연간수입이 750만원이라면 이 가구의 1인당 소득은 150만원인데 198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178만이므로 이 가계의 가족들은 자기의 소득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나라 받는 소득은 1인당 가처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1985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개인가처분소득이 128만원이므로 이 가계의 가족들의 소득은 평균수준을 상회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국민소득의 개념들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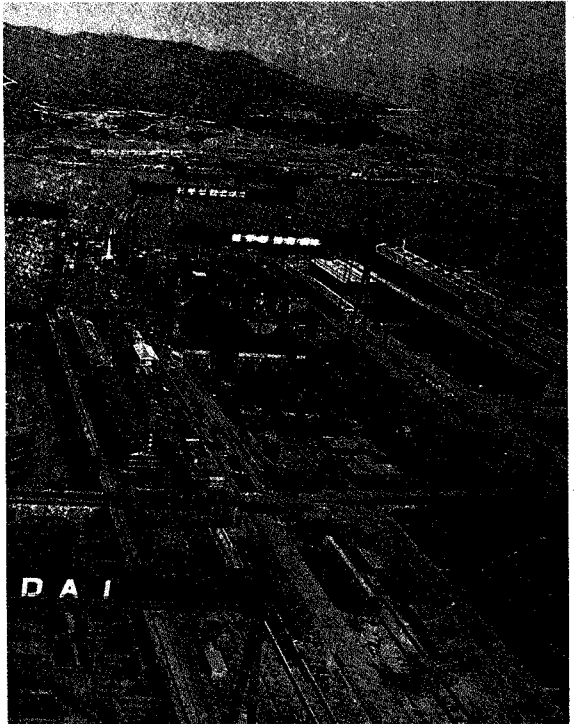
또한 국민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하여 국가간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서로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비교년도가 다른 경우에는 달러화(\$)의 불변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1985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047달러이고 1970년 일본의 1인당 GNP가 1,965달러라고 하여 미국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1985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1970년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하여 비슷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 3. 국민소득의 창출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부문을 농림어업 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용의 편리상 이들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의 4대부문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국내총생산은 이러한 각 경제부문이 생산활동을 한 결과로 생긴 부가가치를 합제한 것이며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경제구조(經濟構造)라고 한다. 따라서 경제구조는 국민소득이 어느 생산활동에서 얼마씩 생겨났는가를 제시하여 주며 공업화의 정도를 재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여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3%이하의 낮은 수준인 반면 광공업부문이 25~30%, 서비스부문이 55~6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버마와



같은 저개발국은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48%이상이며 서비스부문 39%, 광공업부문은 11%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각 경제활동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별 성장율을 이용하고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율을 이용한다. 경제성장율이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국민총소득이나 실질국내총소득과 전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계속)

**양계인 모두가 국산품 애용에 자진  
참여하여 산업보호에 앞장서자.**